

# 산촌진흥과 산림문화 창달을 위한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조 연 환

산지계획과장

## I. 산촌의 개념과 현실

흔히 산촌을 말할 때 “산마루에 위치한 촌락”, “산림으로 둘러싸인 촌락”으로서 농촌과 구별되는 단순한 취락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촌은 그 위치가 산간에 위치할 뿐 산업구조면에서 농촌과 흡사하다 하여 일반농촌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산간농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촌은 농업을 근간으로 한 농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몇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촌은 지역자원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耕地가 극히 적은 반면 주변의 녹색환경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산촌은 취락발생의 원인이 산림자원의 이용에 두고 있으며, 산림에 대한 이용기술체계가 세워져 있다.

셋째 농외취업기회가 임업, 임산물 생산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고, 농업생산면에서는 평지농촌과 달리 傾斜地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산촌지역은 특히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취락이 분산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산촌진흥범령상 산촌을 분류함에 있어 임야의 점유비율이 높으며 여타지역에 비하여 교통비용이 많이 들고, 각종 문화적 제조건의 혜택이 매우 낮아서 주민생활·문화수준이 열악한 산간오지로서 임야율이 75%이상이며 1정보당 인구 밀도가 1.16미만인 지역으로 교통, 통신, 국토보전, 문화교육, 후생 등에 관한 시설정비가 다른 지역의 1/10인 지역으로 산업의 개발정도가 매우 낮은 지역을 산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촌을 구분하는 지표로써 임야율, 경지율, 인구밀도, 인구감소를 등 4가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산촌 지역은 국토면적의 40%, 농가인구의 1/3이 거주하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우리의 산촌지역은

첫째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조건의 혜택이 낮고 산업기반과 생활환경의 정비수준이 타지역에 비교하여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

둘째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도시지역은 과밀화된 반면 산촌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산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는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각종 개발계획의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셋째 임업소득은 종실채취, 버섯채배 등에 불과하여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소득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임업국은 농가수입의 4~5%를 임업소득에서 올리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넷째 과거 우리 농업정책은 주곡증산에 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은 수출 위주의 고도 성장을 추구한 반면, 산림정책은 조림, 사방, 산림보호를 위한 녹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대상인 사람과 산촌은 소외함으로써 산촌의 빈곤화·공동화라는 산촌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산촌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다.

## Ⅱ.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산촌지역은 국토의 보전은 물론 수자원함양, 자연환경보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문화적·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단순 농림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산촌진흥을 위해서는 산촌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산촌을 전원휴양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목재와 임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한계농지를 다목적으로 개발하여 농업, 임업, 임간축산 등으로 발전시켜 산촌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촌은 주변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국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촌이 고유의 산림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촌종합개발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산림청은 '95~2004년까지 150개 산촌마을 개발을 목표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림, 육림, 간벌, 임도시설 등 각종사업을 종합적·집중투자방식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목재집하장,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의 확충·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소득원 확보 및 임업경영 촉진을 도모하고,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임업기능인력 확보 및 양성에 주력한다.

둘째 목재를 주원료로 한 목기, 죽세공, 목조각 등 각종 목재가공품을 생산하는 산촌소득원 개발과 버섯, 산채, 분재, 칩, 야생화, 산지과수, 관상수, 가축(흑염소, 토종닭) 사육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의 이용 가공 시설 등을 설치한다.

셋째 산촌휴양지를 조성하여 도시휴양수요를 산촌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숲속 교실, 산림욕장,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등을 설치하되 휴양객은 산촌부락내 민박시설에 유치도도록 하며,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택개량, 증축 등에 의한 쾌적한 주거환경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도로, 마을 안길 등 기반조성사업과 마을회관, 마을환경림 조성 등 문화 복지 시설도 병행하여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창달하고 환경보전과 지역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며, 생태계 개념을 도입한 안정적 개발로 자연의 과도한 변화를 줄이고 가능한 보전을 원칙으로 개발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촌마을을 실현한다.

〈산촌종합개발사업내용〉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산촌마을조성	복지회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공동저장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밀원단지 조성, 임간방목장 조성, 표고재배시설, 산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정비	소하천 정비, 절개지 복구, 진입로 개설, 마을안길, 가로등 정비, 담장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
소득원 사업지원	향토수종 및 관상수 생산, 야생화원조성, 산채생산, 특용작물생산, 임간방목장 지원, 저온저장고 및 건조장
주택개량	주택·개축, 주택신축

## Ⅲ. 산촌종합개발사례

산촌개발의 사례 중 대표적인 곳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로서 이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현재 이 지역은 집다리골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산림종합박물관 등 "산림종합이용센터"로 연계하여 도차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이 일대 주변의 산림은 화악산 산별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산림사업을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곳으로 개발에 대한 잠

〈 마을 현황 〉

구역면적 (ha)				가구 및 인구		개발여건
계	산림	농지	기타	마을전체	중심마을	
2,556	2,367	133	56	121가구 (농가 79,402명)	58가구 (농가 43,215명)	· 산림종합이용센타와 연계 · 화악산 산별 시범사업단지권역 · 국·공유림 집단화지역

재력이 매우 높은 마을이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총 13,725백만원을 투·융자하여 집중개발할 계획인데 이 지역에 대한 주요 계획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총 투자 계획 〉

부처별	사업비	재원별				연도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96	'97	'98이후
합계	13,725	3,106	512	1,980	8,127	6,836	1,531	5,358
산림청	2,317	1,677	-	640	-	2,317	-	-
내무부	1,548	620	-	928	-	1,428	120	-
농림수산부	1,812	809	356	412	235	330	1411	71
지방비 등	8,048	-	156	-	7,892	2,761	-	5,287

마을개발 기본방향은

- 풍부한 산림자원과 부산물을 활용하여 산촌의 이미지를 부여한 특색있는 산촌마을 조성
  - 단기적인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인 개발로 미래성장형 산촌마을 조성
  - 지암리 전체를 개발대상으로 하되 2~5반을 중점개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도모
  - 자연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등과 연계된 계획으로 효율성 제고
- 하천을 중심으로 휴양산업을 육성,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휴양인구 유치에 중점을 둠.
  - 임업부산물 및 부산물을 이용한 생산, 가공, 유통 등 종합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4계절 소득이 있도록 계획

〈 도입시설의 종류 〉

구분	도입 및 정비 시설
산림종합이용센타 마을 조성 소득원 개발 생산기반시설 재해방지시설 진입도로 정비	휴양림, 수목원, 산림박물관, 눈썰매장, 수렵장 등 신규마을조성(주택, 상가·복지회관, 공동작업장, 주차장, 농기계 보관소, 오수처리시설 등) 기존마을정비(기존도로 정비, 민박마을 조성 등) 관광농원, 시설농업, 입간방목장, 산덕터재배지 등 농경지 정리, 용수원·용수로, 관정 등 소하천 정비 등

〈 공간구성 〉

- 주거구역은 현재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은 생산구역으로 활용하되 장차 주거지로 확장할 수 있는 예비 공간 성격을 부여
- 생산구역은 군도 앞쪽과 하천사이의 논지역과 주거지역 좌우측 발지역으로 설정하고 마을주변에 관광농원, 시설농업단지, 공동퇴비제조장 등을 설치

○ 휴양지역은 산림종합이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정하며 하천 남쪽에 물놀이터와 눈썰매장 시설지구를 배치  
마지막으로 부문별 세부계획은 소득원 개발, 생산기반 정비 마을조성, 기타로 크게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

#### 〈소득원개발사업부문〉

- 발기반정비지구에 관광농원(1,000평)을 조성하여 도시인에게 직접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 농산촌에는 농외소득 창출
- 시설농업(온실)은 2ha에 8가구가 참여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청정농산물과 화훼류를 생산
- 임산물, 표고버섯, 농산물의 저장 및 건조를 위해 저온저장고 1동(30평)과 건조장을 공동이용에 편리한 마을입구에 설치
- 눈썰매장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겨울철 소득원으로 개발하며 각 시설간에는 임도, 산책로 등으로 상호 연결
- 하천부지에 자연계곡수를 이용한 물놀이터(25×50m)를 조성하고 자연지형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휴식, 일광, 오락 등의 기능을 갖도록 시설(3,000평 규모)
- 농선부 북쪽 표고 300~400m 산간지에 10ha규모의 임간방목장을 설치하여 흑염소등을 사육하고 방목장 윗쪽 산간지에는 더덕재배지 10ha를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 축산분뇨의 재활용 및 정화처리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퇴비 제조장 1동(1,500㎡)을 설치

#### 〈생산기반정비 부문〉

- 농경지(밭 15ha, 논 10ha)와 농로 등을 기계화 및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 도모
  - 논 밭은 등고선 방향에 평행되게 경지정리하여 토랑이등의 최소화 및 기계화 효율증대
  - 농로는 기존도로 및 농산물 유통시설 등과 연결되게 하고 농기계 통행이 가능하도록 폭을 4m(지선은 3m)로 함.

#### 〈마을조성부문〉

-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전원속의 푸른마을로 계획
  - 신규마을조성지구(30,590㎡)와 기존마을을 연계, 단위생활권 구성으로 중심마을로 재편 유도
  - 마을전체의 조화와 동선체계의 원활 및 토지이용의 효율 등을 감안하여 격자형으로 배치
- 주택(신축 48호, 개축10호)은 농산촌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하고 민박을 겸한 주택으로서 기능을 강화
- 상가(3호)와 복지회관 1동(92평)은 시도 14호선에 접하여 배치하므로써 이용의 편의성 제고
- 도로와 사업지구, 단독주택지의 경계위치, 중앙도로 좌우에 보도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주거지로서 안정성 제고
- 오수처리시설은 남쪽 준용하천변과 눈썰매장 부근에 각1조씩 설치
- 상수도시설은 수원을 지하 암반관정으로하여 1일 급수량 350 l 기준으로 급수보급율 100% 달성
- 지구외곽의 경사면 및 공간에 완충녹지 조성

#### 〈기타부문〉

- 민박마을과 물놀이터 인근의 소하천 800m를 정비하고 취입보(2개소)를 시설
- 마을 진입로 660m를 폭 6m로 확 포장

## IV. 결론

우리청에서는 산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활력있는 지역공동체로 육성하고 산림자원관리의 거점마을로 조성하므로써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복합적 기능지역으로 정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촌마을을 인근중심도시와 생활권단위로 연계시키므로써 도시와 산촌이 상호 보완기능을 발휘토록 계획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산촌의 중심지에는 임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유치하고 산촌마을의 정취와 향토문화를 보전하면서 정주환

경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주변의 풍부한 산림자원은 도시민의 휴양공간과 지역특산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산촌개발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단위로 산촌진흥사업이 특색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계법령도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다.

또한 산악스포츠 레저시설과 더불어 산지에 콘도시설이 활발히 조성 중에 있는데 도시휴양 수요를 산촌에 유치하여 산촌 마을이 도시민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하고 향토음식 및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므로서 산촌경제의 활성화와 건전한 휴양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된다.